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계명대학교

2026 . 04 . 27

MON: 10:00 - 17:00

Keimyung University

계명대학교 아담스채플 증예배실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전통 위의 새 길: 신학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의미

2026년 4월 27일(월) 10시-17시
아담스채플 증예배실

[일 정]

□ 10:00-10:20 / 예배

□ 10:20-10:30 / 전임 원장 및 강연자 소개 : 박민수 교수

□ 10:30-12:00 / 1부-기조 강연

- 사회 : 김서준 교수
- 강사 : 박경수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 주제 : 신학교육의 역사와 유산 그리고 현대적 통찰: 목회자 양성과 관련해서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5:00 / 2부

- 사회 : 박민수 교수
- 강사 : 김은수 교수 (전주대학교)
- 주제 : 한국적 상황에서 초교파 신학대학원의 의미와 역할

□ 15:00-17:00 / 3부

- 사회 : 곽은성 교수
- 강사 : 오우성 명예교수 (계명대학교)
- 주제 : 한국 신학교육과 지역교회의 동행: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30년 회고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일 245)

J. Newton, 1779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하나님 나라

보통으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 87:3)

AUSTRIAN HYMN: 8.7.8.7.D.

F. J. Haydn, 1797

1. 시 온 성 과 같 은 교 회 그 의 영 광 한 없 다
 2. 생 명 이 같 은 교 회 와 모 든 영 성 도 없 시 니
 3. 주 의 은 혜 내 가 받 아 시 온 백 성 되 는 때

허 락 하 신 말 씀 대 로 주 가 친 히 세 윳 다
 언 제 든 지 흠 러 님 처 주 가 족 합 이 세 없 도 다
 세 상 사 람 비 방 해 도 주 를 찬 송 하 리 라

반 석 위 에 세 운 교 회 혼 들 자 가 누 구 라
 이 런 물 이 세 홀 러 가 회 니 목 마 를 자 누 구 라
 세 상 헛 된 모 든 영 광 아 침 안 개 같 으 나

모 든 원 수 에 위 싸 도 아 무 근 심 없 도 다
 주 의 은 혜 너 받 을 복 은 영 원 무 궁 념 친 다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E^b→D B^b→A A^b→G Fm→Em F7→E7 Gm→F[#]m Cm→Bm

[예 배]

□ 인도 : 최봉도 교수

□ 찬송 /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성경 / 전도서 1 : 4 - 7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
가고 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 설교 / 세대와 하나님의 영원 / 박정근 교수

□ 축도 / 박정근 교수

<설교 Note>

[1부 - 기초 강연]

□ 10 : 30 - 12 : 00

· 사회 : 김서준 교수

· 강사 : 박경수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교육의 역사와 유산 그리고 현대적 통찰: 목회자 양성과 관련해서

박경수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I. 서론

최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출생률의 저하로 인해 대학 학령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대학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학정원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형편이다. 이것은 일반 대학만이 아니라 신학대학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 하락으로 인해 신학교 지원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형편도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화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등록금과 교회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신학대학은 재정적 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실로 신학교육의 위기라고 할만하다.

필자는 신학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 신학교육의 내실을 꾀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신학교가 지속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계속 창출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교육의 환경이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은 소홀히 하거나 멈출 수가 없다.

신학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양성 방식과 신학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회와 신학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전환점이다. 목회자 양성은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을 전승하는 데 필수적이며, 신학교육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탱하는 지적·영적 기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교육의 역사적 발전을 돌아보며 그 유산을 평가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한 통찰을 도출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의 위기를 잘 대처하고 응전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는 본 발표문에서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 경험이 오늘 한국교회와 신학교육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가 섬기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가 어떤 방향의 신학교육을 꿈꾸며 추구하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계명대학교가 연합신학대학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학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II. 초대교회 신학교육

A. 멘토링 교육체계

초대교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교라는 제도가 없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구별된 신학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학교육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삶 속에서, 도제식 멘토링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을 통해 진리를 전수하는 방식이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바실리오스(Basilios) 같은 초대교회 동·서방의 저명한 신학자들도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밀라노의 행정관이었던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신학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지만, 백성

의 요청으로 뒤늦게 세례를 받고 이레 만에 주교직을 맡았다. “당시 목회자나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회중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었다.”¹⁾ 이후 암브로시우스는 심플리키아누스(Simplicianus)라는 스승을 통해 신학적 소양을 쌓고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후일 『성직자의 의무』(De officiis ministrorum)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다.²⁾ 키케로(Cicero)가 아들을 위해 『의무론』을 썼듯이, 암브로시우스도 아들과 같은 성직자의 양성을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 성직자가 어떤 덕을 갖추고 어떤 태도와 삶의 방식을 실천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신학교육 지침서 중 하나로, 서구 사회의 목회자 양성에 있어서 교과서 역할을 했다.

동방 교회에서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Chrysostomos)의 『성직론』(On the Priesthood)이 서방 교회 암브로시우스의 책과 같은 역할을 했다.³⁾ 이 책에서 크리소스토모스는 성직자의 소명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전했다. 암브로시우스가 성직자의 윤리와 실천을 강조했다면, 크리소스토모스는 성직자의 본질과 내면의 고뇌를 부각하였다. 암브로시우스가 ‘성직자는 어떤 덕을 지녀야 하며 실천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크리소스토모스는 ‘왜 성직이 무겁고 두려운 소명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동·서방 모두 공식적인 학교에서보다, 말씀의 봉사와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자연스럽게 신학적 지식과 목회적 감각이 전수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교육 기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도 신자들의 교육, 특히 세례교육과 교리교육을 위한 학교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이다. 이 학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이끈 것으로, 이후 오리게네스가 이곳에서 세례 후보자들을 가르쳤다. 이런 학교의 목표는 목회자 양성이라기보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리를 가르치고 변호하는 데 있었다.

B.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멘토링 교육

필자가 섬기는 장신대도 멘토링 제도를 신학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부는 ‘대학생활,’ 신학대학원은 ‘신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의 담임 교수가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의 학생을 맡아 책임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매주 1시간씩 만나 신앙과 생활 전반에 걸쳐 멘토-멘티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교수에게는 한 학기마다 일정 금액의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에게 각 1학점이 부여된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이 과목은 단지 1학점 수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필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만난 학생들과 국내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함께 탐방하고 1박 2일 같이 여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시의 학생들과 계속 만남이 이어지고 사역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결혼 주례를 하는 등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사역멘토링스쿨’ 또한 멘토링에 기반한 신학교육 제도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멘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7명의 멘토 목회자와 40여 명의 멘티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1명의 목회자와 6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교회 사역에 관

1) 후스토 곤잘레스, 김태형 옮김, 『신학교육의 역사』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7.

2) 암브로시우스, 최원오 옮김, 『성직자의 의무』 (파주: 아카넷, 2020). 전체 3권 102장, 즉 1권(50장), 2권(30장), 3권(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크리소스토모스의 이 책은 6권 60장, 즉 1권(5장), 2권(7장), 3권(18장), 4권(9장), 5권(8장), 6권(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번역본을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PDF로 볼 수 있다.

<https://dn720701.ca.archive.org/0/items/StChrysostomOnThePriesthood/StChrysostomOnThePriesthood.pdf>

한 다양한 이론과 경험을 나누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학기 중 다섯 차례 멘토의 강의와 질의응답 및 팀별 모임을 하며, 방학 중 1박 2일의 나눔 모임을 통해 서로의 유대가 깊어진다. 학생들은 다섯 번의 학기 중 모임과 한 번의 방학 중 모임에 모두 참석해야만 수료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8기가 수료하였고, 현재 9기 모임이 진행 중이다. 사역멘토링스쿨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과 학교의 게시판에 자발적으로 올린 내용을 보면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멘토 목회자들의 헌신이다. 담임 목회자들이 적은 수의 신학생들을 위해 한 학기에 다섯 번, 방학 중 1박 2일의 시간을 오롯이 낸다는 것은 보통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신학생들의 멘토링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 일에 헌신한 20명 이상의 중견 목회자들이 멘토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어 이 제도가 활기차게 운용되고 있다.

필자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제23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학생들의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목회학 특임교수 제도이다. 이 제도 역시 멘토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목회학 특임교수로는 교회를 개척한 젊은 목사, 전통적 목회 틀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견 목사, 목회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성한 은퇴 목사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한 목회자들을 임용한다. 이를 통해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목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목회 멘토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목회학 특임교수가 맡는 수업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 실천 분야를 보완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III. 중세교회 신학교육

A. 공동체 교육체계

중세 초반의 신학교육은 주로 수도원과 대성당 부속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 수도원은 학교와 도서관의 역할을 감당했다.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 외에도 필사와 독서를 통한 지식의 보존과 전달이 이루어졌다. 수도원은 신앙과 학문이 결합된 공동체적 삶의 중심이었다.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수도사 출신으로 590년 로마 감독이 된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전 로마 감독 레오와 함께 대제(Great)라는 칭호를 얻은 두 명 중 한 명이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중세의 첫 교황으로 불리며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토대를 놓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로마가톨릭교회는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와 함께 그레고리우스 1세를 서방교회 최초 네 명의 교회 박사로 선포하였다. 그가 저술한 『목회 지침서』(*Pastoral Rule*)는 중세 시대 목회자 양성의 핵심 문헌이었다.⁴⁾ 그는 목회자를 영혼의 의사로 보았고, 충분한 학문적·영적 준비 없이 목회 사역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의 책은 중세기 동안 성직자의 표준 교재였다. 그레고리우스는 책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누구든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깊은 성찰과 숙고를 통해 그것을 충분히 익힌 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런즉, 미숙한 자가 목회적 권위를 함부

4) 그레고리우스 1세의 이 책은 4권 62장, 즉 1권(11장), 2권(11장), 3권(40장), 4권(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어 번역본을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PDF로 볼 수 있다.
https://ia600607.us.archive.org/14/items/Elijah_Elisha/St.%20Gregory%20the%20Great%20-%20The%20Book%20of%20the%20Pastoral%20Rule.pdf

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영혼의 돌보는 일은 곧 학문 중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유 속에 깃든 상처가 육신의 내장에 자리한 상처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해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영적 교훈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자주 거리낌 없이 자신을 마음의 의사라 자처하고 있는가? 이는 약제의 효능을 모르는 자들이 육신의 의사로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⁵⁾

1,400년 전의 글이지만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는 경고처럼 들린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평가처럼, “그레고리우스의 『목회 지침서』는 중세 시대 대부분의 성직자에게 주교재로 사용되었고, 그 시대를 통틀어 가장 보편적으로 읽힌 저술들 가운데 하나”였다.⁶⁾

중세 후반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대학이 설립되면서 스콜라 신학이 등장했다. 대학은 처음 중세 지식인 길드에서 시작되었다. 대학(university)은 ‘교사와 학자의 공동체’(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그런 대학의 스콜라주의는 성경·철학·논리학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신학 연구를 발전시켰다. 대학의 교육 방식은 권위 있는 문헌을 읽고 해석하는 강독(lectio)과 그것을 두고 서로 질문하고 논박하는 사고를 훈련하는 토론(disputation)이 핵심이었다. 특히 페트루스 롬바르두스(Petrus Lombardus)의 『명제집』(*Sentences*)은 중세 대학 신학교육의 중심 교재가 되었으며, 신학생들은 성경 주석을 통해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명제집』을 해설하고 변증하는 과정을 통해 신학자로 성장했다. 당시에는 ‘명제집 학사’(bachelor of the *Sentences*) 과정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대학의 스콜라주의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사변적 신학 논쟁이 주류였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신학을 체계화하고 논증의 방식을 확립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지적 틀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나친 논리적 세분화, 현실과의 거리감, 학문과 경건의 분리는 후대 개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3세기 등장한 탁발수도회는 대학에 새로운 영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14세기에 헤라르트 흐로테(Gerard Groot)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공동생활형제단’은 토마스 아 캠퍼스(Thomas à Kempis)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으며 경건과 실천의 통합을 강조했다. 공동생활형제단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필요를 공유했지만, 수도 서약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수도사는 아니었다. 이들은 이름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새로운 경건’(devotio moderna)을 지향했다. 공동생활형제단은 특히 교육활동에 힘을 쏟았는데, 초등교육에 대한 강조, 체벌 사용 제한, 상급생이 하급생을 지도하는 멘토 제도 등을 성립시켰다. 또한 라틴어가 아닌 토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중세의 체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중세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통찰을 준다. 하나는 신학의 체계적 학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이 경건과 분리될 때 신학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이다.

B.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공동체 교육

신학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요소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5) Gregory the Great, *Pastoral Rule*, Book 1. Chapter 1.

6)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62.

소명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세우며 자라게 된다. 필자가 섬기는 장신대에도 공동체 정신 함양을 신학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목회자 후보생 교육에 있어서 공동체 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목회는 동역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담임목사와 동료 목회자가 함께할 때라야 목회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목회는 홀로 잘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베토벤의 합창을 혼자 연주하거나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안에 공동체성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공동체 신학교육을 위해 장신대에는 600여 명의 학생이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이들은 학기 중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6시에 새벽경건회를 하며, 그리고 매일 11시 15분에는 전교생이 함께 예배한다. 특히 목회자 후보생인 신학대학원 1학년은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기도와 학업과 묵상의 훈련을 한다. 마치 중세 수도원에서 성무일과(聖務日課)에 따라 기도와 노동을 했던 것과 비슷하다. 또한 신학대학원 1학년은 모두가 조를 나누어 2박 3일 동안 경기도 포천의 경건훈련원에서 침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공동체는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이다. 흔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몸의 각 지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15:5)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나무에 속한 다양한 가지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지체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게 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정신을 함양하는 곳이 신학교이다.

장신대에 속한 학생, 직원, 교수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 장신공동체라는 단어이다. 필자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장신공동체’를 총장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겪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심지어 손톱이나 발톱이라도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다. 따라서 신학교육은 이런 공동체 정신에 따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그래야만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바르게 목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는 말씀처럼, 서로의 약함을 채우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신학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신학교육

A. 로마가톨릭교회 신학교육

16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날처럼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가 본격 등장하였다.⁷⁾ 로마가톨릭교회도 개혁 운동의 한 흐름으로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데 시스네로스(Francisco Jiménez de Cisneros)가 성직자 신학교육의 쇄신을 위해 1499년 알칼라대학을 설립하였다.

7) 곤잘레스에 따르면, 신학교(seminary)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레지널드 폴(Reginald Pole) 추기경이었다. ‘Seminary’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판(seedbed)이다. 두 단어 모두 라틴어 ‘semen’(씨앗)에서 유래했고, ‘seminarium’은 ‘씨앗을 끼우는 곳’이라는 의미로 성직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다.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146.

대학의 중심이었던 신학부는 스콜라 신학뿐만 아니라 성경 원전 연구를 강조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콤플루툼 대역성경』(*Complutensian Polyglot Bible*)이다. 알칼라의 라틴어 이름 콤플루툼에 따라 이렇게 명명되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를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틴어 중심의 중세 세계에서 성경 원어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표어인 ‘아드 폰테스’(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자’)와 연결된다. 이 대역성경은 신약은 1514년, 구약은 1517년 완성되었지만, 교황청의 허가 문제로 1520에 가서야 공식 출판되었다.

로마교회 트렌토공의회(1545-1563)는 1563년 7월 15일 23차 회의의 ‘개혁 교령’ 제18조에서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의 설립’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각 주교좌성당, 수도 교구장좌 성당 또는 그보다 더 큰 성당들은 교구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서 그 도시와 교구의 일정한 수의 소년들을, 그리고 소년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구 단위에 거주하는 일정한 수의 소년들을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에 주교가 그러한 목적으로 마련한 신학원에 기거하게 하여 양육하면서 종교적으로 양성하고 교회의 학문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⁸⁾

트렌토공의회는 신학생의 나이, 교육과정, 의무는 물론이고 신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 그리고 신학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수회의 설립자인 로올라의 이나시오도 알칼라대학 출신이었다. 1540년 공식 인가를 받은 예수회는 로마가톨릭교회 교육과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학교육과 관련해서 예수회가 1599년 내놓은 『교육지침서』는 그들의 교육 선교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학업은 문법, 인문학, 수사학을 배우는 5년의 ‘중등 과정,’ 논리학, 윤리학, 자연과학을 배우는 3년의 ‘고등 과정,’ 그리고 신학 공부에 전념하는 4년의 ‘신학 과정’으로 이루어져 전체 12년이 소요되었다. 수업 방법은 스콜라주의 전통의 강독과 토론에 더하여 교리를 반복하여 암기할 것이 강조되었다. 교육지침서는 신학 과정의 목적, 수업 방식, 경건과 학문의 결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 공부의 목적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영혼의 돌봄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⁹⁾

신학에서는 매일 강독이 있어야 하고, 자주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 매주 토론(논쟁) 훈련은 필수적인데, 이는 학생들이 교리에 굳게 서고 논증하는 능력을 연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¹⁰⁾

경건과 학문은 결합되어야 하되, 어느 쪽도 다른 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8)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김영국, 손희송, 이경상 옮김,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트렌토공의회 · 제1차 바티칸공의회』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Sessio XXIII, Decreta super reformatione, Cannon XVIII, 750.

9) *Ratio Studiorum* (1599), Pars IV, Regulae Professorum Theologiae, 1. 영어 번역본은 Allan P. Farrell, S.J., *The Jesuit Ratio Studiorum of 1599: trans.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Washington, D.C.: Conference of Major Superiors of Jesuits, 1970)을 참조하라.

10) *Ratio Studiorum* (1599), Pars IV, “De Ratione Docendi in Theologia”, 3.

러나 학생의 경건 훈련이 학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¹¹⁾

이와 같은 예수회의 교육 지침은 선교의 물결을 따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교과과정의 기본적 원형이 되었다.

B. 루터교회 신학교육

필자는 루터와 멜란히톤에 국한해서 루터파 종교개혁의 신학교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와 멜란히톤의 신학교육 개혁은 비텐베르크 대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두 사람 모두 1502년 설립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512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그리고 멜란히톤 역시 1518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부임한 후 평생 그곳에서 교수로 일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논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 자체가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곳 또한 대학이었다는 사실이다.”¹²⁾ 이처럼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지식인 운동이며 도시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혁 운동이었다. 따라서 교육의 개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 마르틴 루터의 신학교육

마르틴 루터는 독일 전역에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과 교리문답이 필수적 기본 교육이며, 특히 목회자는 깊이 있는 신학적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일찍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1520)에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루터는 “교황이나 황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대학의 철저한 개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으며, 개혁되지 않은 대학보다 더 악하고 악마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다.”¹³⁾라며 지도자가 대학의 교육을 개혁하는 일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적 신학과 학문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학교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이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성경이며, 특히 어린 소년들에게는 복음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¹⁴⁾고 주장한다. “오, 우리가 지도와 교육을 위해 맡겨진 이 가련한 젊은이들을 얼마나 불의하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우리는 두려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¹⁵⁾ 루터는 독일 귀족과 지도자들이 젊은 학생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으며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루터는 1524년 『독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그리스도교 학교 설립과 운영을 호소함』이라는 글을 통해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것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또다시 촉구했다.¹⁶⁾ 루터는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이며, 가장 중

11) *Ratio Studiorum* (1599), Pars IV, De Studio cum Pietate Coniungendo, 1.

12)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127.

13) Martin Luther,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ristian Estate”(1520), trans. Charles M. Jacobs, rev. James Atkinson, *Luther's Works* (이하 LW), vol. 44, ed. James Atkin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202.

14) LW 44, 205-06.

15) LW 44, 206.

16) Martin Luther, “To the Councilmen of All Cities in Germany That They Establish and Maintain Christian Schools”(1524), trans. Albert T.W. Steinhäuser, rev. Walther I. Brandt, LW 45, 347-378.

요한 공익사업이며, 또한 복음 전파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 연구가 마르틴 브레히트가 “독일 학교의 역사에서 한 표지석”¹⁷⁾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글은 루터의 교육개혁 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다.

루터는 1539년 『루터의 독일어 저작 비텐베르크판 서문』에서 신학생과 목회자의 신학교육 방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루터는 교부와 공의회책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많은 교부와 공의회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¹⁸⁾라고 말한다. 루터는 이런 신학책들이 사라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 소망도 바로 그것이었다.¹⁹⁾ 글쓰기는 줄어든다고, 대신 성경 자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일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인다. 사실 루터는 자신의 글이 출판되는 것을 마뜩잖게 여겼다. 왜냐하면 자신의 책이 성경 연구에 방해가 되거나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의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지금 내 책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 어떤 경우에도 이 책들이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²⁰⁾ 그는 세례자 요한처럼 성경이 흥하고 자신의 글은 쇠하여 잊히기를 바랐다.

루터는 이 글에서 시편에 근거한 신학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데, 기도(oratio), 묵상(meditatio), 시련(tentatio)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신학 공부는 첫째로 무릎을 꿇는 일, 즉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는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곱씹어 묵상하는 것이다. 신학 공부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셋째로 시련, 즉 영적 시련(anfechtung)은 이 말씀이 얼마나 옳고, 참되고, 강력한지를 실제로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신학의 지식이 교회의 현장에서 검증되고, 삶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말이다. 루터는 역설적으로 마귀와 교황주의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인해 겪은 시련 때문에 자기가 “꽤 괜찮은 신학자”²¹⁾가 되었다고 말한다. 루터를 통해 우리는 신학 공부가 단지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경건, 학문, 삶의 실천이 어우러진 것임을 배우게 된다.

2. 필립 멜란히톤의 신학교육

루터교회 전통에서 루터보다 신학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글을 남긴 사람은 필립 멜란히톤이다. 멜란히톤은 1518년 비텐베르크대학의 그리스어 교수로 취임하면서 “청년의 학업을 교정하는 방법에 관하여”(De corrigendis adolescentiae studiis)라는 강연을 하였다. 그는 이 강연에서 신학교육이 스콜라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같은 성경 원어에 집중해야 하며, 철학과 문학 같은 인문·교양학도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 고전어와 인문학을 함께 강조하는 멜란히톤의 입장은 1552년 출간된 『메클렌부르크 학교들을 위한 교육 방침』에도 잘 드러난다.

17) Martin Brecht, *Martin Luther: Ordnung und Abgrenzung der Reformation 1521-1532*, Band 2 (Stuttgart: Calwer Verlag), 1986, 141.

18) Martin Luther, “Preface to the Wittenberg Edition of Luther's German Writings”(1539), trans. Robert R. Heitner, *LW* 34, 283.

19) 박경수, “루터의 9월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함의,” 『선교와 신학』 59 (2003), 235-263을 참조하라.

20) *LW* 34, 284.

21) *LW* 34, 287.

교리는 책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자는 반드시 교리의 전체적 내용에 정통해야 하며, 성경의 모든 조항이 어디서 어떻게 서로를 입증하고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제공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누구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그 직무에 유익한 인문학 공부를 통해 반드시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한다.²²⁾

이처럼 멜란히톤은 교회와 교육의 개혁을 위해 성경 원어를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논증하였다.

1528년 『작센 선제후의 교구 목회자 방문 위원회를 위한 지침서』는 루터의 저작 전집에 포함되어 있지만,²³⁾ 이 문서의 실제 주 저자는 멜란히톤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것이 1529년 루터의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학교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인 목회자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구절이 있다. 길지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설교자들은 백성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권면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와 국가 양 영역에서 유능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독 일어를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망상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오랜 훈련과 특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젊은 시절부터 지속해 온 기나긴 공부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2절에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설교자들이 평신도보다 더 높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4:6절에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되었음을 칭찬하고 있다. 실로 다른 이들을 명료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사소한 기술이 아니며, 학문적 소양이 없는 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아니다. 이러한 유능한 인재를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속 정부에서도 또한 그들을 요청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준비 시켜야 할 것이다.²⁴⁾

이 글에서 멜란히톤은 목회자 후보생이 상당 기간에 걸쳐 철저히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자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멜란히톤은 이렇게 잘 준비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 교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 Reinhold Vormbaum (Hg.), *Evangelische Schulordnungen*, Bd. I (Gütersloh: Bertelsmann, 1860), 59-60. C. L. Robbins, *Teachers in German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12), 106에서 재인용.

23) Martin Luther, “Instructions for the Visitors of Parish Pastors in Electoral Saxony”(1528), trans. Conrad Bergendoff, *LW* 40, 269-320.

24) *LW* 40, 314.

멜란히톤이 1530년 출판한 『신학 공부를 위한 간략한 방법』은 신학교육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²⁵⁾ 분량으로 보면 네 쪽인데, 한쪽마다 좌우 2단(double-column) 조판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체 8단이다. 이 짧지만 유익한 글의 요점을 정리하면 첫째로, 멜란히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 본문을 읽어 전체를 통독할 것을 강조하는데, 나름의 순서를 제시한다. 가장 먼저 로마서를 정독하고,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라고 권한다. 이 두 권의 책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기에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틀이라고 말한다. 그 후에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순으로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다. 둘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주요 주제, 즉 죄와 율법, 은혜와 복음, 신앙과 칭의 같은 신학적 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숙지할 것을 권면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1522년 출판한 『신학총론』(*Loci communes*)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로,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강조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약속하며 신앙을 통해 의롭다고 함을 받는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언어 특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라고 말한다. 그래야만 성경 본문을 직접 탐구할 수 있으며, 교부들과 스콜라 신학자들의 해석이 어느 지점에서 원문으로부터 이탈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성경이 교부들의 해석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교부들이 성경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교부의 글에서 유익한 것을 취하되, 그것이 성경의 증거로 확인될 때만 신뢰하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루터의 신학 방법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멜란히톤 역시 이 모든 공부도 기도 없이는 헛될 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다. 멜란히톤의 신학 공부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강조해도 좋을 만큼 현실 적합성이 높다.

멜란히톤은 성경과 인문주의에 기초한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과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비텐베르크뿐 아니라 유럽의 대학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멜란히톤은 ‘독일의 교사’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C. 개혁교회 신학교육

루터교회 종교개혁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개혁교회 운동은 스위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특히, 제네바에서 칼뱅과 함께 동역했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를 통해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칼뱅이 이끌었던 제네바아카데미의 신학교육과 존 녹스가 쓴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1560)에 나타난 교육개혁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칼뱅과 제네바아카데미²⁶⁾

종교개혁 사상과 실천이 일반 민중에게까지 널리 전파되고 또 후대에까지 지속해서 이어지

25) *Corpus Reformatorum* (CR), Vol. II. ed. Carolus Gottlieb Bretschneider et al. (Halle: Schwetschke, 1835), col. 455-462. 원문은 구글 북스에서 볼 수 있다. CR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전집으로 총 10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세 주요 인물, 즉 필립 멜란히톤(1-28권), 장 칼뱅(29-87권), 훌드리히 츠빙글리(88-101권)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바젤 도서관 온라인(https://www.e-rara.ch/bau_1/content/zoom/1748269) 287-289쪽에서 정서된 본문을 확인할 수 있다.

26)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11-35의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이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설립된 기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1559년 제네바에서 시작된 제네바아카데미이다. 제네바아카데미는 종교개혁, 특히 개혁교회 전통을 온 유럽으로 전파하는 요람이었다. 유럽 각 나라의 청년들이 제네바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후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배운 개혁교회의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개혁신학 전통은 명실상부 국제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1536년 제네바 교회의 개혁자로서 삶을 시작한 칼뱅은 처음부터 교육이 종교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확신하였다. 1537년 1월 16일 칼뱅이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제네바 교회와 예배의 체제에 관한 조항들』에는 파문과 성만찬의 시행, 시편을 노래하는 것, 결혼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할 학교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구상대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²⁷⁾ 하지만 칼뱅의 학교와 교육 구상은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여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렀던 1538-41년 사이에 더 무르익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1538년 요한 슈투름(Johann Sturm)의 주도하에 8년 과정의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칼뱅도 이곳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쳤다. 이것이 이후 제네바아카데미의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된다.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칼뱅은 9월 26일 제네바 소(小)의회에 『교회법령』을 제출하였다. 『교회법령』은 교회의 네 직분,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중에서 교사의 임무는 “신자들에게 건전하고 참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그릇된 사상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²⁸⁾ 『교회법령』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황무지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며, 자녀들이 목회직과 시민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학교를 설립해야만 한다.”²⁹⁾고 못 박고 있다. 이처럼 1541년 『교회법령』에서 이미 고등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했지만, 그 계획을 실제로 실현된 것은 1559년 제네바아카데미를 통해서였다.

제네바아카데미는 마지막까지 교사 충원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잔아카데미 교수들이 대거 제네바로 오면서 그 문제도 해결되었다. 로잔을 다스리던 베른의 행정관과 로잔 목회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로잔아카데미가 폐쇄된 것이 오히려 제네바에는 도움이 된 것이다. 마침내 1559년 6월 5일 칼뱅이 목회하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제네바아카데미가 개원하였다. 초대 교장 테오도르 베즈(Théodore de Bèze)는 개원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헛된 레슬링 게임을 구경하려고 체육관으로 몰려갔던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시시한 게임에 참여하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지식과 학문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고 여러분들의 조국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지휘관의 거룩한 군병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³⁰⁾

이것은 제네바아카데미가 경건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교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27) Jean Calvin,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48-55.

28) Jea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62.

29) Jean Calvin, *Ecclesiastical Ordinances*, 63.

30) *Discours du Recteur Th. de Bèze prononcé à l'inauguration de l'académie dans le temple de Saint Pierre à Genève le 5 juin 1559* (Originally published Geneva 1559, reprinted Geneva 1959), 19.

영광을 높이 드러낼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신학교육 기관임을 천명한 것이다. 개혁교회의 요람이 된 제네바아카데미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제네바아카데미의 교육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가 인문학과 교양에 대한 강조이다. 베즈의 개원 연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네바아카데미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와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신학 교육과 더불어 인문학과 교양에 대한 교육에 강조점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인문학적 소양만으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문학과 교양은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고 청중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그와 같은 부류 사람들의 책을 읽어 보라. 그들이 참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고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놀라울 정도로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으로 파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골수에까지 새겨져서 모든 철학자와 수사학자의 힘이란 성경의 감명에 비교할 때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³¹⁾

신학교육에 있어서 인문학과 교양은 분명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오직 성경만이 분명한 신앙의 원리와 규범이 된다. 이처럼 제네바아카데미는 처음부터 성경과 함께 인문학을 주요 교과과정으로 삼았다.

제네바아카데미의 또 다른 특징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의 특징이기도 하다. 칼뱅은 지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려는 추상적이고 무익한 스콜라주의에 대해 반대하면서, 인문주의에 기초한 유용하고 실천적인 지식을 추구하였다. 또한 교회와 학교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었던 것도 특징이다. 교사가 목사, 장로, 집사와 더불어 교회의 영속적인 직분이었다는 사실은 제네바아카데미가 제네바 교회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네바아카데미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학교였다. 아카데미의 입학비는 무료였으며, 모든 비용을 교회가 책임졌다. 교회와 학교는 결코 분리된 기관이 아니었고,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님의 기관이었다.

개혁교회 신학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제네바아카데미는 초등교육 과정과 고등교육 과정의 긴밀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과 신학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인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와 더불어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설교를 위해 필요한 수사학과 논리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교양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가르쳤다. 이와 같은 인문학과 교양 학문에 대한 강조는 오늘의 신학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신학이 좁은 울타리에 갇힌 파편화된 학문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진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학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목회자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신학교육도 더욱더 간학문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녹스와 『제1치리서』³²⁾

31)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I, 8, 1.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1559년 5월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 1547년 로마가톨릭 군대에 붙잡혀 프랑스 갠리선의 노예로 전락한 후 잉글랜드의 베릭어폰트워드, 뉴캐슬어폰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제네바를 떠돌다가 12년 만에 마침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귀국하였다. 그 후 그는 1572년 죽기까지 에든버러 수호성인의 이름을 딴 세인트자일스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이끌었다. 그가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기 위해 1560년 내어놓은 문서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제1치리서』이다.³²⁾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헌법이라 할 수 있는 1560년 『제1치리서』는 앞으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았다.³⁴⁾ 목회자를 위시한 직분을 맡은 자의 진정성에 관한 기술, 예언모임과 치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 교육의 기회 평등에 관한 주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원칙 등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 교회개혁을 위해서도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제1치리서』와 같은 교회헌법에 교육의 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6세기 어떤 프로테스탄트 교회헌법도 『제1치리서』만큼 교육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아마도 교육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제1치리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진보를 진정으로 갈망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³⁵⁾ 청년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제1치리서』는 적어도 중소도시에는 각 교회에 교육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산골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하며, 시찰감독이 있는 큰 도시에는 대학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³⁶⁾ 『제1치리서』의 특별한 점은 부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자비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⁷⁾ 누구든지 부모의 경제적 조건 때문에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1치리서』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아직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에든버러대학(1583)이 설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미 스코틀랜드에 있던 세인트앤드루스(1413), 글래스고(1451), 애버딘대학교(1495)에서 학생들에게 언제, 무엇을, 얼마 동안 가

32) 박경수,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에 나타난 장로교회 정치체제의 근간,” 『스코틀랜드 교회치리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19-61의 내용을 요약하고 수정한 것이다.

33) 『스코틀랜드신앙고백』과 『제1치리서』는 녹스를 포함한 여섯 명의 존(John)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녹스의 몫이었다. 여섯 명의 목회자는 당시 세인트자일스 교회의 설교자였던 존 녹스(John Knox), 녹스 이전 세인트자일스의 설교자였으며 이후 글래스고의 목회자가 된 존 윌록(John Willock), 로디언의 목회자가 된 존 스포티스우드(John Spottiswoode), 법학자이며 퍼스의 목사인 존 로우(John Row), 세인트앤드루스의 교구 목사인 존 더글라스(John Douglas), 세인트앤드루스의 부수도원장인 존 윈람(John Winram)이다. 1578년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나왔기 때문에 1560년의 것을 제1치리서라고 부른다.

34) 『제1치리서』는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리, 성례, 우상 폐지, 목회자의 선출, 목회자의 사례 및 대학과 학교, 교회 지대와 재산, 교회의 치리, 장로와 집사의 선출, 결혼과 장례를 비롯한 교회의 정책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James K. Cameron, *The First Book of Disciplin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그리고 한글 번역은 박경수, 『스코틀랜드 교회치리서』, 115-233을 보라.

35) 박경수, 『스코틀랜드 교회치리서』, 156-57.

36) 박경수, 『스코틀랜드 교회치리서』, 157.

37) 박경수, 『스코틀랜드 교회치리서』, 158-59.

르칠 것인지, 어떤 단계를 밟아 교육받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강사, 담임교수, 학장, 총장으로 세울 것인지, 강사와 직원의 급료와 장학생의 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대학교의 특권이 무엇인지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은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교구학교, 초등교육을 시행하는 문법학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체계의 구조를 제시하였다.³⁸⁾

2010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45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총리였던 알렉스 새먼드(Alex Salmond)가 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 “종교개혁이 만들어 낸 교육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발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1560년에 제정된 『제1치리서』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1696년 학교정착법으로 이어졌고, 스코틀랜드의 무상교육과 보편교육 확립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공교육이라고 믿습니다.”³⁹⁾ 『제1치리서』의 교육개혁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교구학교로부터 대학교의 고등과정까지 보편 무상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기회를 보장하였고, 이로써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진보를 끌어냈다는 평가이다.

D.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정체성 교육

16세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신학교가 생겨났고, 로마가톨릭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는 각각 자기 전통에 충실한 신학교육 방법과 내용을 발전시켰다. 필자가 속한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신학교이다. 장신대의 학훈은 경건과 학문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6세기 개혁교회 전통의 요람이었던 제네바아카데미가 천명했던 교육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필자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건 교육의 개선을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걸었다. 앞서 말했듯이 장신대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입학하면 모든 학생이 최소 6개월 생활관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2박 3일 경건훈련원에 입소해야 한다. 이때 학교에서 마련한 경건 훈련 지침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장신대의 경건 훈련이 개혁교회 전통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개혁교회 전통 안에도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훈련』과 리처드 백스터의 『기독교 생활지침』에서 보듯이 경건 훈련의 원칙과 실천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신학대학원생의 경건 훈련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통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팀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장신대의 정체성을 띤 경건 훈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출판하려고 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새로운 경건 훈련 지침서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지역교회에도 흘려보내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 활력이 필요할 때 이 경건 지침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곧 다른 전통에 대해 폐쇄적 태도를 가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전통에 대해 열린 자세로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융합이며 통합이기 때문이다.

V. 경건주의와 근현대 신학교육

A.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에 나타난 신학교육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은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가 1675년 프랑

38) 김중락,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와 교육개혁,” 『영국연구』 38 (2017), 38.

39) 이재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교육개혁: 에든버러대학을 중심으로,” 『종교개혁과 교육』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7), 263에서 재인용.

크푸르트에서 출판한 책으로 경건주의의 선언문이자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원래는 요한 아른트의 설교집 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단행본으로 별도 출판되었다.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서 교회의 타락을 진단하고, 2부에서 개혁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3부에서 여섯 가지 구체적 개혁안을 제안한다. 슈페너의 여섯 가지 개혁안 중 다섯 번째가 신학교육 개혁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인 설교 개혁도 목회자 양성 교육과 긴밀하고 연관되어 있다.⁴⁰⁾

슈페너는 신학교가 단순히 학문적 훈련의 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경건의 훈련(exercitia pietatis)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생들은 지식뿐 아니라 기도, 묵상,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있고 삶이 없는 목회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경건과 학문은 분리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신학생들의 경건 훈련을 위해 슈페너는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르침만큼이나 효과적이며, 때로는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페너는 신학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는 등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건 모임’(collegium pietatis)을 통해 진정한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교 개혁과 관련해서도, 슈페너는 설교는 청중에게 학식을 과시하거나 논쟁적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자의 내적 신앙과 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슈페너는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회중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붙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설교가 머리에만 맴돌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회중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평이하고 단순한 언어로 명료하게 전달해야만 한다.

이러한 슈페너의 경건주의 신학교육 사상은 프랑케(August H. Francke)와 친첸도르프(Nikolaus L. Zinzendorf)를 통해 이어졌다. 할레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프랑케는 대학교 안에서 ‘경건 모임’을 지도하였고, 할레를 경건주의의 유력한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는 특히 할레에 빈민들과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 학교, 무료 진료소, 출판사를 세우기도 했다. 할레대학교가 배출한 또 한 명의 인물인 친첸도르프는 작센에 있는 자신의 영토에서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후스파 후예인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헤른후트’(Herrnhuter)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건주의를 실험하였다. 경건주의가 독일 밖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은 친첸도르프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의 강조점은 무미건조한 이성주의와 황폐한 정통주의와의 결별을 잘 보여주는 ‘마음의 종교’라는 개념, 개신교 정통주의의 생명력 없는 믿음에 반대하여 내걸었던 ‘살아 있는 믿음’이라는 표어에 잘 나타나 있다.

B. 근현대 신학교육

19세기 신학교육은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 급격한 학문적 전환을 맞이했다.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베를린 대학 설립(1810)에 참여하면서 신학을 대학 학문 체계 안에 편입시켰고, 목회자 양성을 철학신학·역사신학·실천신학의 통합적 훈련으로 재구성했다. 당시 계몽주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신학도 하나의 과학적 학문임을 변호해야만 했다.

40) 슈페너가 『경건한 열망』 제3부에서 제안하는 여섯 가지 개혁안은 성경의 풍성한 사용, 만인제사장직의 실천, 지식이 아닌 실천적 기독교, 논쟁보다 기도와 모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개혁, 설교의 갱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독일에 편만했던 정통주의의 교리 중심주의에 대한 맹렬한 반격이었으며, 삶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교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Philip Jacob Spener, *Pia Desideria*, trans. and ed. by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4).

이로써 신학교육은 경건 훈련 중심에서 학문 연구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역사비평 방법론의 발전은 성서학과 교회사 연구를 심화시켰지만, 동시에 신앙과 학문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과학으로서의 학문과 역사비평 방법론은 신학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과학이 되게 했지만, 과연 이런 신학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긴장은 더욱 첨예해졌다. 유럽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유주의 신학의 낙관론이 흔들리고, 칼 바르트(Karl Barth)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목회자 양성에서 말씀의 신학적 권위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실용주의 전통과 교단 중심의 신학교 체계가 발달하면서 목회 현장 적용을 강조하는 실천 중심 교육이 확산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해방신학, 선교신학의 부상으로 신학교육의 지평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목회자는 단순한 설교자를 넘어 공동체 지도자이자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 재정의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신학은 세분화와 전문화의 시대를 맞았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형이 모든 분야의 지식에 능통한 '만능인'이었다면, 20세기 와서는 자기의 한 분야에만 정통한 '전문인'이 요구되었다. 신학 분야에서 성서학자는 역사와 교리와 실천에 무지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성서학 중에서도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만 아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신학 교과과정도 구체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신학이 이론과 실천, 경건과 학문의 통합적 교육이 아니라, 마치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항문외과 등 인체 각 부분을 치료하는 의사들처럼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학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자 신학 교과목도 각각 독립적 과목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따라서 융합적인 사고와 실천에 주목하지 못하게 되었다.

C.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신학교육 방향

16세기 종교개혁 시기 인쇄술 혁명이 신학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했듯이, 21세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이 신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 분명하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은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이용하여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신대는 이번 학기부터 모든 학생, 직원, 교수가 다양한 인공지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담당할 특임교수를 임용하였다. 신학교육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남용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장신대는 학과 중심의 파편화된 신학 교육과정보다 학과를 넘나드는 통전적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융합 과목과 팀티칭 과목을 개발하도록 교수들을 독려하며, 개발 시에는 과목 개발비와 성과급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서학과 더불어 기독교교육학과 예배설교학이 함께할 때, 보다 통전적 가르침과 배움이 될 것이며, 그 배움이 교회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신대는 현시대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된 2020년 4월에 전염병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한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성찰을 담은 『재난과 교회』(2권)를 장신대에서 출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시대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학 담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한경직 강연'을 실시한다. 1888년 이래 계속 이어지는 '기포드 강연'처럼, '한경직 강연'이 장신대를 대표하는 명품 강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신학 포럼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과학과 신학’이라는 주제를 정해 올해 10월에 장신대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이 개혁전통의 관점에서 과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대중적 책을 출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학술적 관점에서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신대는 매년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회의 성도들 눈높이에서 대답을 제시하는 책을 내놓을 것이다.

VI. 결론: 신학교육의 역사와 유산으로부터 배우는 통찰

우리는 신학교육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신학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뚜렷해지려면 신학교육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먼저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어원 자체를 보면 신(神, theo)에 관한 학문(學問, logia)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을 단지 신에 관한 이성적이며 체계적인 탐구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존 리스는 “신학은 하나님 계시의 빛에서 하나님, 인간 존재, 우주의 본질, 신앙 자체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행위”⁴¹⁾라고 정의한다. 필자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신학에 관한 정의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학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인간과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변혁하는 실천’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다음으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어원적으로 보면 외부의 가르침(敎)을 통해 내부의 가능성을 육성(育成)하는 것이다. 교육에 해당하는 라틴어 ‘에두카레’(educare)가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에두케레’(educere)가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으니 역시 외부의 가르침을 통해 내부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국 교육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정범모는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정의한다.⁴²⁾ 행동, 계획, 변화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교육은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과 삶의 변화를 꾀하는 행위이다. 정범모의 정의가 완전한 것도 유일한 대답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육이 의도성을 가지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신학교육이란 무엇인가? 신학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인간과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변혁하는 실천’이라면, 그리고 교육이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행위’라면, 신학교육은 ‘하나님 계시의 빛 안에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삶과 세계를 변혁하는 사람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신학교육은 계시에 근거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일반 교육과 구별된다. 둘째로, 신학교육은 의도적 행위이다. 신앙의 성숙, 하나님 인식의 심화, 삶의 변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학생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로, 신학교육은 변혁을 지향한다. 지식의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신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다.

A. 교육의 방식과 관련하여

이제 신학교육의 역사와 유산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찰이 무엇인지를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먼저 교육의 방식과 관련하여 멘토링 교육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멘토링의 중요성이다. 신학교육에서 멘토링은 단순히 교수법 중 하나가 아니라, 신앙과 학문과 삶이 통합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전달하는 가장 본질

41) John H. Leith,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89), 92.

42)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68), 18.

적인 교육 방식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두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심으로써 그들을 형성하셨듯이, 신학교육에서도 지식은 강의실에서 전달되지만, 인격과 영성은 관계 속에서 전수된다. 멘토는 단지 앞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으로 멘티에게 신학적 실존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멘티는 멘토의 학문적 엄밀성뿐 아니라 그의 기도 습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사역의 자세를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것은 지금도 목회자 양성 훈련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 방식이다.

둘째,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교육은 어울려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배워서 남 주나’가 아니라 ‘배워서 남 줘야’한다. 신학교육 역시 개인의 지적·영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를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신앙 자체가 본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듯이, 신학교육 역시 고립된 개인의 학습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관계적 과정 안에서 심화된다. 목회자 교육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처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B. 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이제 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경건과 학문의 통합, 정체성과 적합성 사이에서 균형잡기, 교회와 신학교 간 상생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자. 셋째, 경건과 학문이 통합되어야 한다. 신학교육은 지식의 습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동시에 학문적 엄밀성이 모자란 경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경건 없는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학문 없는 경건은 맹목적 열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신의 주저 『기독교강요』의 제목을 “모든 경건의 개요와 구원의 교리를 아는 데 필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경건에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최근의 저서”라고 명명했다. 이처럼 참된 신학적 가르침은 언제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육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적 훈련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인격적 헌신과 경건 형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과정이어야 한다. 머리의 신학이 가슴의 신앙으로, 가슴의 신앙이 손발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학교육은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복음의 정체성(identity)과 현실 적합성(relevancy)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복음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데만 집중하면 신학교육은 세상과 단절된 박물관의 언어가 되고, 현실 적합성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면 복음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희석되고 변형될 위험에 처한다. 신학교육은 복음의 본질을 타협 없이 붙들면서도, 그 복음이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사회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끊임없이 씨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학과 인문학의 균형 역시 신학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인문학적 소양 없는 신학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을 말하는 공허한 언어가 될 수 있고, 신학적 뿌리 없는 인문학적 탐구는 궁극적 의미와 방향을 상실한 지적 방랑이 될 수 있다. 신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신학적 훈련과 함께, 인간의 언어·역사·문화·철학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인문학적 감수성을 함께 키워, 복음으로 세상을 읽고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한 ‘상관적 방법’(correlation method)으로서의 신학교육일 것이다.

다섯째,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인 동시에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신학교육은 교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교회 역시 신학교육 없이 건강하게 설 수 없다. 신학교육이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분리되어 학자들만의 언어를 재생산하는 데 머물 때, 그것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생명력을 잃은 지식에 불과하다. 신학교육은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적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사역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할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학교육은 교회의 현재 모습을 단순히 정당화하거나 유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비추어 교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함으로써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신학교를 선지동산 혹은 예언자학교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신학교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이끄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요람이다.

C. 교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또한 신학교육은 목회자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학교육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생교육이다. 신학교육은 신학교와 목회자 양성기관의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학교육은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평생에 걸쳐 참여해야 할 전 생애적 교육이다. 따라서 신학교육은 특별히 부름을 받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의 여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자 계속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신학교의 교육이 아무리 충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목회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목회자는 급변하는 시대와 다양한 목회 현장의 도전 앞에서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신도 신학교육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신학적으로 성숙한 평신도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신학교육의 열매이다. 결국 신학교육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을 더 신실하게 섬기도록 이끄는 평생의 과정이어야 한다.

일곱째, 신학은 이 시대를 위한 오늘의 만나이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듯이, 신학교육이 과거의 신학적 언어와 형식을 반복하는 데 머문다면, 아무리 정교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인간이 씨름하는 실존적 물음과 시대적 고통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살아있는 교육이라 할 수는 없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신학이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와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답까지 제시하지는 못한다.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신학은 상대적이다.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신학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교육은 보편적 복음을 자기 시대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성을 가지도록 설명하는 작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육은 본질적으로 오늘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신학교육이 살아있는 한, 오늘도 만남은 내린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한국교회 위기론은 이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온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이 위기가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 위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가 나름의 진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조직, 교회의 사회를 향한 자세와 태도, 뿌리 깊은 개교회주의와 분파주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주의, 신학적 엄격주의나 혼합주의나 자유주의, 예배 예전의 빈곤이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를 위기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찰해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제도나 신학이나 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회자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론에서 제기한 신학교육의 위기는 결국 목회자 양성의 위기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올바른 신학교육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 것이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성기 때의 교회는 항상 충분히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두었던 반면에, 교회가 다소 쇠락한 시기에는 목회자들의 무지함이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다.”⁴³⁾라고 진단한다. 신학교의 교육을 보면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 지금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역사는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이야기이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신학교육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새롭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스스로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무기력하게 담보와 퇴보를 거듭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속화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응답할지, 세상의 도전에 어떤 방식으로 응전할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미래에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학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43) 후스토 곤잘레스, 『신학교육의 역사』, 204.

[2부 - 강연]

□ 13 : 00 - 15 : 00

· 사회 : 박민수 교수

· 강사 : 김은수 교수 (전주대학교)

한국의 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 역사와 정신

김은수 교수 (전국초교파신학대학원 연합회장/전주대)

1. 들어가는 말

한국적 상황에서 초교파신학대학원이라 함은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건전한 신학과 전통 위에 세워진 종합대학교(University)의 신학대학원은 통칭한다. 현재 결성되어 있는 초교파신학대학원 연합체의 공식 명칭은 전국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약자 전신연, Associated Council of Interdenomination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다.⁴⁴⁾

‘초교파’라는 말은 교회 역사에서 영어로 ‘에큐메니칼’(ecumenical)로 표현된다. 그 어원은 헬라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왔고 한글로는 오늘날 ‘초교파’ 혹은 ‘교회일치’로 번역될 수 있다. ‘오이쿠메네’는 신약성경에서 15번 사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⁴⁵⁾ ‘오이쿠메네’는 헬라어 oikeo(살다, 거주하다) 또는 oikos(집)에서 유래하였고, 70인역(LXX) 성경에서는 세계, 대지(earth) 혹은 흙을 뜻하는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오이쿠메네’는 현대 에큐메니칼운동의 리더 가운데 하나인 비셔트 후프트(W. A. Visser't Hooft)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크게 3가지의 의미로 발전되었다.⁴⁶⁾ 첫째는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뜻으로써 ‘사람이 거주하는 온 세상’ 혹은 ‘로마 제국 전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둘째는 초기 몇 세기 동안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점차 생성된 것으로써 교회 전체와 관련되거나 ‘보편적인 교회론적 유효성’(universal ecclesiastical validity)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⁴⁷⁾ 셋째는 현대의 발전된 개념으로써 전체 교회의 세계적인 선교적 확장 관련되거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회들 또는 여러 교파들에 속한 기독교인들과 기관들이 하나 됨을 추구할 때,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 됨에 대한 자각과 그 희망을 표현하는 내용 혹은 태도와 관련되어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위 3가지의 의미 가운데 마지막 현대의 발전된 개념의 뜻, 즉 기독교의 연합과 하나 됨을 바라는 표현으로써 에큐메니칼을 사용한다.

한국교회의 과제 가운데 특별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교회 연합과 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이 선교 초기 미국을 비롯한 교파선교에 의한 영향이 있었다고

44) 이 글은 2026년 4월 27일 개최된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30주년기념 학술세미나”를 위해 작성된 것이며, 특별히 계명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신연(구 한기신협)을 중심으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초교파신학대학원을 논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료(archive)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식 문서들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리와 평가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45) 이 글에서 이 용어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에큐메니칼’ 및 ‘오이쿠메네’에 대한 용어의 역사와 용법에 대해서는 W. A. Visser't Hooft,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1517-1848)*, Vol. I, ed. by Ruth Rouse and Stephen Charles Neill(spck, 1986), 735-740. 한글은 이형기, 『세계교회협의회 4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14-224;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년/개정증보 5쇄), 31-32.

46) W. A. Visser't Hooft,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1517-1848)*, 215쪽 이하 참조.

47) 가령, 325년 제1차 니케아공의회(Ecumenical Council of Nicea), 38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공의회 등과 같이 세계의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김은수,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서울: 생명나무, 2015년), 84-95.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장로교회와 같은 경우 그 교파의 수를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백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 교회의 관점에서 그 유래를 보기 힘들 정도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파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고 일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한국의 기독교계 종합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신학대학원들의 연합체인 '전신연'의 앞에 그 성격을 규정하는 '초교파'를 넣었다고 할 수 있다.

2. 전반기 역사: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협의회

전신연은 한국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협의회(한기신협)에서 처음 출발했다. 1999년 가을에 처음 결성되었고, 필자는 설립 이사로 참여했다. 처음 취지는 초교파 신학대학원 간의 학술교류에 방점을 두고 출발했다. 그러나 교파 중심인 한국교회의 특성상 초교파신학대학원 출신들은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교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대학 출신자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교파 직영의 신학대학교와 학제와 학점의 호환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그 과정을 재차 이수해야 하는 폐단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초교파신학대학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신입생 유치는 물론이고 졸업 후 진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기신협의 설립 동기 가운데 들어있던 “기독교대학 출신의 신학도에게 목회의 기회를 충분히 열어주기 위하여”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초교파 신대원들의 연합으로 목사 안수 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⁴⁸⁾

초교파신대원 졸업생들의 목사안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안수가 한기신협의 중점사업이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4월 15일 회원교 8개(강남대, 경성대 서울기독대, 아신대, 이화여대, 전주대, 평택대, 호서대)로 출발한 한기신협은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대표위원으로 호서대 서용원교수를 선출했다. 그 후 성산효대학원대학교(2010년), 계명대학교(2013), 필리핀 장로교신학대학원(2013) 등이 한기신협의 회원교로 가입했다.

창립 후 2여 년의 준비와 안수 후보자 선정 및 연수, 시험의 모든 과정을 거쳐 그 첫 번째 목사안수식을 2002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질 수 있었다. 안수식은 1박 2일로 진행되었는데, 목사안수 기념전야제와 축하 예배가 2002년 2월 20일(수) 오후 5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전주대학교 대표 안수위원인 필자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어 역사적 첫 출발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제1회 목사안수 대상자는 모두 13명으로, 박경희, 반재광, 양재혁, 양현혜, 여한구, 왕은숙, 유윤종, 이상옥, 이정숙, 전재옥, 조광범, 조기연, 한미라이다.

그 후 제2회 2003년 3월에는 안미영을 비롯한 7명이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제3회 2004년 3월에는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이순임, 변상현을 비롯해 11명이, 제4회 2005년 2월에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유선식, 최정숙을 비롯한 25명이, 제5회 2006년 3월에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18명이, 제6회 2007년에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노희자, 안재웅을 비롯한 13명이, 제7회 2008년 3월에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이희영을 비롯해 18명이, 제8회 2009년 2월 이화여대 대학교회 안수식에서 안운형, 정광석 등 29명이,

48) 한기신협에 처음 참여했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목사안수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칫 교파연합으로 세워진 연신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또한 에큐메니칼 정신에서 연세대 졸업생들의 학점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교단들이 있다는 이유로 창립 회원교로 참여하지 않았다.

제9회 2010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김민철, 이윤미 등 25명이 안수를 받았고, 4명이 편목을 했다.

제10회 2011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김영심, 정오 등 29명이, 제11회 2012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김형길, 양정주 등 24명이, 제12회 2013년 3월 호서대 대강당에서 임채학, 최현정 등 27명과 편목 2명이, 제13회 2014년 3월 호서대 대강당에서 김창익, 옥필훈 등 25명이, 제14회 2015년 2월 호서대 대강당에서 정성철, 김선희(계명대) 등 25명이 안수를 받았다. 제15회 2016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조성균, 한창수 등 24명이, 제16회 2017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김재근, 박정림, 조윤영(이상 계명대)과 김재옥, 안영수 등 34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배출되었다. 제17회 2018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정봉현, 김범신, 양철호, 류현숙 등 29명이, 제18회 2019년 3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정귀남, 윤숙희(이상 계명대)와 양경무, 박주혜, 김정숙, 조성숙 등 28명이 안수를 받았다.⁴⁹⁾

한기신협은 2002년부터 400여 명이 넘는 목사를 배출하면서도 출발할 때 기치로 내걸었던 ‘새 시대, 새 교회, 새 목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부에서 받아왔고, 구체적인 개혁의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계속 미루어지거나 외면하고 있었다. 필자는 1999년 한기신협 설립 이사로서 참여하여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4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추천했고, 한기신협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모든 안수식과 연수에 참여하여 협력했다. 2015년에는 한기신협 초기부터 이사장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전주대의 한 교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한기신협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면서 필자가 이사로 위촉(기간: 2015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되었다.⁵⁰⁾ 회원들의 개혁 요구를 잘 알고 있던 필자는 2016년 1월 부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기신협 개혁안 3가지를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⁵¹⁾ 그러나 개혁안은 이사장의 무성의한 태도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실행을 촉구하던 필자에게 2017년 9월 13일 정관에도 위배 되는 불법적인 해임을 이사장 단독으로 통보했다. 이것은 한기신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고 있었던 많은 회원들에게 개혁을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한기신협 목회자연합회장을 지금까지 이사장이 지명하던 것에서 회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018년 7월 제17차 연차대회가 제주도에에서 개최되어 최초로 각 지역회(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5개 지역)에서 후보자를 1인씩 추천하여 직접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순임목사(3기 안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2019년 1월 17일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협의회 회원목사 일동’의 명의로 “이사장직과 재정

49) 2019년까지의 자료는 매년 배포되는 예식 순서지를 참고했으며, 목사 안수자는 이화여대, 전주대, 호서대가 회원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름을 모두 밝히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사 안수자 404명 가운데 논란이 된 부적격자를 종종 이사회에서 합격 처리하여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목회자의 자질 저하에 한기신협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50) 이사 추천과 임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필자가 이사로 위촉된 것은 초대 대표를 역임한 서용원교수가 한기신협 설립 이후 매년 빠짐없이 참여하여 협조하는 김은수교수를 이사로 영입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사회는 신대원협의회이기 때문에 각 회원교(10~11개교)가 파송하는 대표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 5~6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의 이사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51) 개혁안은 첫째, 이사회 등 거버넌스를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성할 것, 둘째, 연회비(25만원)를 본부에서 다 거두어 집행하지 말고, 최소한 절반을 각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배정할 것, 셋째, 4백여 명의 회원 처리권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이사회가 갖지 말고 각 지회로 권한을 넘기고, 항소를 다룰 재판국을 본부에 설치할 등이다. 한 이사장은 회원들의 민주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으나 모든 이사들이 찬성하여 결의되었다.

에 관한 촉구서 발언문 - '시대적 소명'에 따른 조직의 바로서기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이 이사와 모든 회원에게 전달되었다.

"... 교파주의를 탈퇴하고 새시대·새교회·새목회를 지향하겠다는 애초의 목표와는 달리,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특히 이사회 중심 구조의 정관을 만들어 이사장 독단으로 운영함에 따라 회원 목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회원 목사들은 소속감마저 상실한 채 표류하는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현재까지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정,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지난 18년 동안의 한국기독교교신학대학원협의회 예산과 결산(수입과 지출)을 지체 없이 공개하라... 회계를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통장 거래 등을 현 이사장이 해오고 있는 바... 이사장이 회계를 겸하고 있다!... 둘, 현 이사장 체제 하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기독교교신학대학원협의회가 앞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에 걸림이 되므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현 이사장은 자신이 2018년 3월부터 재임되었다고 하면서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나,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르지 않고 셀프 연임을 자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⁵²⁾

불법적인 셀프 연임으로 한 이사장이 물러나고, 우여곡절 끝에 목회자협의회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조건으로 2019년 4월 17일 윤재선목사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⁵³⁾ 목회자협의회 가장 크고 시급한 종교법인 설립의 여망을 잘 알고 있었던 윤 이사장은 법인설립을 이사회가 결의하고 임시총회에서 이를 공표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방해하며 전임 이사장의 나쁜 선례를 따라 목회자협의회를 외면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일찍이 한기신협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회원들은 교단의 울타리도 없이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외롭게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연합회의 결성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5년 5월 17일에 '목회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심비언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고광범목사(안수 1기)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안수를 받고 배출된 목사가 56명에 이르렀고, 많은 회원들이 개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합체가 절실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는 '목회자 연합'을 지원하여 회원들을 지원하고 격려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때부터 많은 회원들이 안전한 목회를 하기 위해 한기신협을 떠나기 시작했다.

윤 이사장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심하게 한기신협을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심지어 회의 등에서 언어 폭력과 불법을 자행했다.⁵⁴⁾ 이에 '목회자연합회 기획운영단 일동'은 2019년 10월 4일 '법인설립 추진을 위하여 이사님들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 그들은 이 글에서 회원들의 법인 설립의 열망을 회원들의 의식조사를 첨부하여 호소했다. 즉, 회원들은 자신들이 양육(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9%에 그친 반면,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71%이며, 82%는 한기신협이 내세운 '새시대, 새교회, 새목회'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기신협이 '목사 자격을 유지해

52) 위에 대한 답변이 없자 2019년 3월 18일 '한국기독교교신학대학원협의회 목회자협의회 기획운영단'(이순임 회장 연합회 임원 5명 전체, 각 지역회장 5명, 각 위원회위원장 3명, 연구위원 6명 등 19명)이 그 후 또 한 번의 촉구서를 제출했다.

53) 회원교의 대표가 아닌 윤 이사장이 추대된 배경에는 전임 한 이사장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이사장 역할을 능히 감당할 만한 회원교 대표들은 추천에서 배제함)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재선은 한기신협의 명칭대로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회원교의 대표가 아님에도 이사장이 되었고, 그는 처음 출마하면서 종교법인설립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하던 회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추대되었으나, 곧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회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54) 2019년 9월 20일자 회장 이순임의 공개서한 "법인설립 추진을 위하여 부치는 글" 참조. 필자도 회의 석상에서 윤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경험함.

주는 멤버십 클럽’(58%)이나 ‘동문회’(18%) 정도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압도적이며(93%), 절실하게 필요하다(92%)고 응답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아닌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한기신협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제시했다.

‘법인추진위원회 일동’은 2019년 10월 18일 ‘법인설립을 위하여 부치는 글 3’을 보내며 법인설립의 정당성을 알렸고, 2019년 10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종교법인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협의회 목회자연합”(한목연)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에 즉시 윤 이사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11대 회장 이순임 목사를 제명하고, 직권으로 윤은희 목사를 12대 회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윤 이사장은 ‘공지 사항’을 통해 새로 설립된 한목연의 법인을 한기신협과 무관한 별개의 단체로 규정하고 여기게 절대 협조하지 말 것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목연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기신협과 결별하게 되었다.

3. 후반기 역사: 전신연과 한목연의 동반성장 시대

전반기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제18회(2019년 3월)까지 한기신협이 배출한 목사가 4백여 명이 넘어서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법인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긴급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인의 설립을 문제 삼아 분열되고 말았다. 종교법인은 회원들의 목회 활동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법적인 보호이고, 예배당 건축을 비롯하여 교회 재산을 취득할 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교인들이 자신의 헌금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정당하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신협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불법을 저지르며 제명과 단죄로 일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후 전신연과 한기신협의 재결합을 위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신을 비워야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간단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을 뿐이다. 사실 전신연은 어떠한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재결합에서도 걸림돌이 전혀 없었다. 인사권은 회원교가 대표를 추천하여 파송하면 전신연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재정은 종교법인 한목연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매일 것이 없다. 따라서 전신연 대표 교수들은 설립 이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제자들의 진로에 일조하는 것이 회원교 교수로서 갖는 사명이자 보람이다.

제19회 목사안수식은 전신연과 종교법인 한목연이 연합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거행되었다. 대전겨자씨교회(담임목사 김영심, 10기)의 이바나바전도사는 한기신협의 모든 안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했으나 합법적으로 결성된 종교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한기신협에서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결단이 전신연의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신연의 출범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020년 7월 6일(월)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서울기독대(전석재교수), 전주대(김은수교수), 평택대(김문기교수), 호서대(김동주교수) 등 4개 대학 대표가 모여 ‘발기위원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김동주교수가 직접 관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마나도 국립종교성 신학대학원(Institut Agama Kristin Negeri Manado, Indonesia)과 인도 칠칠대학교(Chil Chil University, India)까지 참여하여 6개 대

학으로 출발하면서 그 명칭을 ‘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전신연)로 정했다.⁵⁵⁾ 한기신협의 회원 교였던 위 대학들은 각 신학대학원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한기신협을 탈퇴하고, ‘전신연’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쳤다.⁵⁶⁾

2020년 7월 10일(금) 서울기독교대학교 전석재교수, 전주대학교 김은수교수, 평택대학교 김문기교수, 호서대학교 김동주교수가 다시 호서대에 모여 ‘전국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 발기를 선언했다. 설립 취지문에는 위 회원교로 가입한 각 “대학원은 교수회의에서 설립을 적극 지지 받았다”고 명시하고, “한국신학교육이 쇠하고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실제 운영되는 초교파 신대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므로 신대원 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사료” 된다는 설립 이유를 밝혔다. 그리하여 전신연은 한목연과 함께 2020년 7월 11일(토) 대전겨자씨교회에서 제19회 목사안수식을 거행하였다.

그 후 전신연은 한목연과 연합으로 각 회원교에서 목사안수 후보자들의 청원을 받아 신청 서류의 학점과 학위, 사역 경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⁵⁷⁾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전체 연수와 보충수업, 그리고 각종 시험 등의 상세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안수를 받도록 했다.⁵⁸⁾ 이 모든 과정을 필자가 맡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신연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회원교 대표 교수 4명의 공동 집례(회장은 안수례 위원장)로 2021년 3월 1일(월) 대전겨자씨교회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한 11명을 대상으로 제20회(법인 2기)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거행된 안수 예식에서는 최종적으로 11명(고상덕, 김윤, 오세란, 유용욱, 이수형, 최광진, 박성혜, 오진석, 곽우영, 박기용, 양명희)이 목사로 안수를 받아 배출되었다. 또한 2021년 4월에 계명대학교가 전신연 회원교로 가입하였고, 신학대학원장 임경수교수가 계명대의 첫 대표로 파송되어 임기 동안 전신연을 성실하게 섬겼다.⁵⁹⁾

제21회(법인 3기) 안수 예식은 2022년 2월 7일(월) 대전겨자씨교회에서 거행되어 모두 9명(백승훈, 허선호[이상 계명대], 구혜정, 김사랑, 조현희, 최하은, 김기정, 연은숙, 김철오)이 목사로 안수받았고, 1명(김도원)이 편목을 하여 회원으로 허입되었다. 제22회(법인 4기) 안수 예

55) 초안에 표시된 교류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초교파 신학교육 커리큘럼 구성, 2) 학점 인정 및 교류, 3) 재학생 및 졸업생 연합대회 개최, 4) 각 기관 교수들의 교류 협력, 5) 목회자 배출 및 교회 개척 및 성장지원 6) 기타 신학대학원 상호 업무 협력 논의

56)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의 경우, 2020년 7월 7일(화)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한기신협 탈퇴와 전신연 가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탈퇴 회의 내용은 “선교신학대학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함”, 가입 회의 내용은 “초교파 신학대학원들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함”

57) 한목연과 전신연의 연합으로 종교법인의 목사로 안수를 받은 후보자들에 관해서 연수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후보자는 일단 불합격(혹은 연기) 처리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가령 2025년 지원자는 16명이었으나, 최종 안수자는 13명이었다. 또한 필자가 전신연 설립 이후 회장으로서 심사위원장 겸 안수례위원장을 맡아 목사의 자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는 결의로 모든 안수자의 이름을 여기 밝힌다. 목사안수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목사안수 청원서. 2. 학부·대학원 성적 및 졸업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직계포함). 4. 목회활동 보고서 및 계획서(목회활동 내용 및 목회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포함한 자신의 세계관 신앙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목회계획서를 A4용지 5매 분량으로 제출). 5. 추천서(교수 1부, 목사 1부, 한목연지역회장 1부). 6. 목회사역 확인서. 7. 사역비지급 명세서. 8. 건강진단서. 9. 개인정보 동의서.

58) 후보자 전체 연수에서 치르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 후보자 자신의 미래 사역에 도움이 되며 학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반드시 논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A4 10매 이상/글자 크기 11). 2. 설교 : 제시된 성경 구절 중에서 선택하여 제목은 본문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정하되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연결하여 20분 분량의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A4-9매 내외/글자 크기11). 3. 신구약 성경 시험. 4. 인성 및 영성 검사

59) 임경수 교수와 그의 후임 김서준 교수는 회원교 중 가장 먼 거리에서 성실하게 섬겼다.

식은 2022년 12월 3일(토) 호서대 대학교회에서 진행되어 모두 10명(서정민, 석혜진, 정순분 [이상 계명대], 권혁찬, 신미화, 이은영, 전계순, 허충행, 김난예, 덩상)이 목사로 안수받아 배출되었다. 제23기 안수 예식은 2023년 11월 25일(토) 호서대 대학교회에서 개최되어 모두 13명(황태영[계명대], 강희자, 김선희, 손병욱, 이에녹, 전영선, 정동섭, 지선미, 황인수, 박정화, 강흥구, 김인수, 김정모)이 목사로 안수받아 배출되었다.⁶⁰⁾ 제24기 안수 예식은 2024년 11월 23일(토) 호서대 대학교회에서 진행되어 도합 10명(김미경, 김미선, 김민선, 김종곤, 윤천기, 최정희, 김바울, 허민, 서수련, 박승일)이 목사로 안수 받아 배출되었다. 제25기 안수 예식은 2025년 11월 22일(토) 호서대 대학교회에서 거행되어 최종적으로 13명(강영두, 김선영, 김은희, 박종훈, 이신규, 정순자, 조성미, 진정희, 채윤화, 최한성, 석규호, 조한나, 강신영)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1명(이대순)이 편목을 하여 회원으로 허입되었다.

종교법인으로 출범하여 전신연과 한목연이 공동으로 배출한 목사는 67명이다.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훈련하여 배출한 신실한 목회자들이라고 확신하며 여기에 그 실명을 모두 실었다.

4. 초교파 신학대학원연합회의 정신: 미래목회, 새교회, 세계선교

전국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는 그 출발부터 종교법인 한목연과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으며, 두 단체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신연은 건전한 신학교육과 목회자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그 가운데 책임자를 목사 안수후보자로 추천하고, 안수 후 목사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한목연과 공동으로 이들을 수개월에 걸쳐 철저히 검증하여 연합으로 안수하여 목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협력 정신으로 두 공(公)기관은 공동의 모토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 즉, “미래 목회, 새 교회, 세계 선교”라는 모토 아래 모든 순서지에 “전국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와 한국초교파신학대학원목회자연합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⁶¹⁾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전신연 회장으로서 한목연과 연합으로 목사안수 후보자 전체 연수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 강의에서 밝힌 모토의 내용과 정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 목회’이다.

전신연과 한목연의 첫째 모토인 ‘미래목회’는 2000년 처음 출범할 때 결단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정신과 상통한다. 전통이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은 과거 역사의 자취와 정신을 오늘날 성찰함으로써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은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시대의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항상 개혁해야 한다(ecclesia semper repormanda). 전신연과 한목연이 초교파로 연합하고 새롭게 개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한기신협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새

60) 2023년부터 법인의 기수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한기신협과의 연합을 한목연 대표가 여러 차례 시도 하였으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고, 원래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뜻에서 처음부터 기수를 그대로 살려 23기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61) 전신연이 처음 출발할 당시 모토는 “21세기, 미래목회, 세계선교”였으나, 한목연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래목회, 새교회, 세계선교”로 정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일찍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눅 16:13)고 하셨으나, 한기신협은 불법으로 회비라는 명목 등으로 재물을 거두어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목회자연협회의 재정권과 인사권까지 독점하였다. 따라서 전신연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그 어떠한 재물을 모으거나 집행하지 않으며 계좌를 갖지 않고 청렴하게 섬기고 있다. 모든 재물은 합법적인 종교법인 한목연의 공식 계좌를 통해 집행하고 매년 세무서에 세부 내역을 보고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대단한 개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총회장, 총무 등을 선출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의 선거법에 위배 되는 일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교계 현실을 목도(目睹)하면서 전신연과 한목연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에 기여하고, 본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정신을 지켜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목연은 지금까지 미래 목회의 바람직한 길로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대 회장 이순임목사는 종교법인을 어렵게 탄생시킨 산파의 역할을 다하였고 지금까지 교육훈련원장을 맡아 회원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2대 회장 김영심목사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한목연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초를 닦았고 행정적 체계를 세웠다. 3대 회장 고재호목사는 한목연이 안정적인 조직으로 뿌리내리도록 회원 간의 소통에 노력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화목한 공동체의 길을 열었으며, 4대 회장 임채학목사는 계간지 ‘PASSION’을 발간하여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와 정보교환의 활성화는 물론 각 지역회의 부흥회와 월례회, 신학교육훈련원의 세미나를 적극 뒷받침했으며, 전국 곳곳에 한목연 교회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새 희망을 주고 있다.⁶²⁾

둘째, ‘새 교회’이다.

‘새 교회’라는 모토는 그 어떤 교권이나 교조적인 교리(Dogma)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주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정신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엡 1:22; 5:23, 골 1:18). 따라서 주인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왕권 의식’으로 무장된 큰 성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활성화’를 수행하며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막과도 같은 공동체이다.⁶³⁾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나 신학은 언제나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한다. 자신의 신학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교만한 것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요 17장). 이런 점에서 전신연의 회원 교들은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정신을 담아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를 가진 ‘생명나무’(아래 이미지 참조)를 로고로 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정한 초교파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권이나 우월감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에 대해 필자는 오래전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전통적인 서구교회이든 신생의 비서구교회이든 모든 연합회와 모임에서 그 참석자들의 지위가 모두에게 얼마나 평등한가 하는 것이다. 둘째,

62) 한기신협도 종교법인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3대 연합회장은 한기신협에 ‘통합 제안서’를 보내며 하나가 되도록 애썼고, 4대 회장은 직접 한기신협을 찾아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며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말씀(요 17장)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다.

63)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서울: 복있는 사람, 2023년/40주년 기념판), 221-224.

모임이나 연합회의 참석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얼마나 열려있나 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과 청년의 참석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경우, 가부장적인 전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얼마나 초교파적이며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특히 소수의 의견과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토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성숙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⁶⁴⁾ 전신연과 한목연도 이러한 에큐메니칼 정신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초교파 연합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계 선교'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계교회협의회와 복음주의 세계로잔위원회는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했다. 즉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는 '교회의 선교'(missio ecclesiae)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⁶⁵⁾ 따라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육 대륙 어디에서나 그의 선교의 도구로 참여하는 신앙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local)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지역(global)이 선교지이며, 지역사회 선교가 곧 세계 선교로 연결되는 것이다.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는 '교회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선교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선교 역사를 가지지 못한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졌음을 기억해야 한다.⁶⁶⁾ 교회는 직제(Amt)나 교단(Kirche)이 있기 전에 지역교회(Gemeinde)가 먼저 있었고, 모든 지역 주민을 살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다.⁶⁷⁾ 가령, 예수를 따르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옛세네파 공동체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사상과 부활 신앙 등 매우 비슷한 점을 모두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공동체는 1세기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소멸하였고, 다른 공동체는 1세기에 이미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를 선교라고 한다. 불이 타고 있음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E. Brunner).

20세기까지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지금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좋은 위치나 지역을 활용하여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한 교회 본질의 회복에 있다. 지역의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 예수처럼 타자를 위한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본회퍼(D. Bonhoeffer)의 '타자를 위한 교회'(Gemeinde für andere)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구조'(Strukturen missionarischer Gemeinden)로써, 교회가 '오는 구조'(Komm-Struktur)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구조'(Geh-Struktur)를 분명히 해야 한다.⁶⁸⁾ 전신연은 한목연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

64)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34-35. 한국의 많은 교단에서는 어떤 부서들의 경우, 반드시 노회장이나 지방회장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으며, 여성 혹은 나이 제한을 통해 차별받은 경우가 많이 남아 있다.

65) missio Dei의 기원과 해석, 변증법적 신학과의 관계 및 칼 하르텐슈타인의 신학에 대해서는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년/개정증보 5쇄), 53-61, 122-146.

66) 김은수, 『선교역사로 보는 교회사』, (서울: 생명나무, 2015), 22. 전주대 대학원을 거창에서 전주까지 다녔던 한 시골 목사님이 이 한마디에 도전을 받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대전한빛교회 백용현목사)이 되었다.

67) 선교적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서는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를 참조하라.

68) Hans Jochen Margull (Hrg.), *Mission als Strukturprinzip, Ein Arbeitsbuch zur Frage*

복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지역사회를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시각에서 바르게 성찰하고 재정립함으로써 미래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자산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초교파 신학대학원의 충분하고 상세한 역사를 정리해야 하겠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논할 수 있는 것들을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바라기는 전신연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초교파 신학대학원에 대한 전체적 역사 정리와 의미,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적 전망이 이를 계기로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전국초교파신학대학원연합회

Associated Council of Interdenomination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issionarischer Gemeinden, (Genf: WCC, 1968[3.Aufl.]), 5-7.

[3부 - 강연]

□ 15 : 00 - 17 : 00

· 사회 : 곽은성 교수

· 강사 : 오우성 명예교수 (계명대학교)

한국 신학 교육과 지역 교회의 동행: 연합신학대학원 30년 회고

오우성 명예교수 (계명대학교)

<요 약>

1. 머리말

시대적 난관 (1996년-2026년): IMF 1997-2001, 코로나 사태 2020-2023

2. 연신원 설립 배경과 교육 이념

정체성 문제: 기존의 일반대학원 석사(1985) 박사(1987) 과정과의 차별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문성 제고
연신원: 목회적 실용적 교육
지역교회와의 연계, 학제간 연구, 조직/제도의 탄력적 운용

3. 학사 운영상의 난제들과 해결책

1) 대학원 명칭 문제

목회신학대학원(1996) ---> 신학대학원(2000) ---> 연합신학대학원(2004)

2)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수강생 배경 차이를 감안한 분반 교육?
합반으로 양자간의 이해 증진 --> 신앙과 학문의 성숙의 길

3) 새로운 전공과목의 연구와 개발

목회학 과목중 기독교상담분야 강화(2010), 영어목회학과와 교회음악학과 시도

4. 전망과 대책

지역 교회와의 협력기구 상설
전공분야간 학제간 연구 활성화
기독교 영성분야 연구와 개발
초교파신학의 장점을 살림
시니어 교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졸업생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 교류

1. 머리말

연합신학대학원의 30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설립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극복하여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학문적 업적을 쌓고, 지역교회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뜻깊은 기념 세미나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연신원은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20세기 말에 설립되어 포스트모더니즘의 21세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사회적으로는 2가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01년까지 지속된 IMF와 2020년에서 2023년에 걸쳐 세계적인 재난을 불러온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연신원이 설립되자마자 시작된 IMF는 연신원의 존립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연신원은 수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위기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신원이 이러한 시대적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존속하게 된 데에는 주님의 크신 도움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혼자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심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연합신학대학원(이하 연신원)이 30 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교회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동행의 지혜를 가지고 연신원이 더 멀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연신원 설립 배경과 교육 이념

연신원은 1995년 10월 18일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고, 1996년 3월 1일 연신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원을 신설하는 법적이며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이 쉽지 않았다. 대학본부의 결재와 협조를 거치고 교육부의 인가를 얻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두되는 질문들이 있었다. 먼저는, 이 대학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의 문제였다. 그 당시 일반 대학원에는 이미 신학석사(1985)와 신학박사(1987)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신학석사 대학원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신설되는 대학원의 모집 정원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 신설 대학원은 기존의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 대학원의 교과목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들은 신설 대학원 존립과 학사 운영에서 이미 개설된 신학 석박사 학위 과정과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수들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이 논의는 결국 이렇게 요약되어 결론을 맺었다: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학문적 연구와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연신원은 특수대학원으로서 지역교회의 현실과 부합되는 목회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을 한다. 이런 필요를 위해서 연신원은 제도와 조직이 가변적이며 순발력이 있고, 교육과정은 교회와 목회에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융합과 응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연신원은 다양하고 급변하는 목회와 교회의 수요와 문제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성이 있는 대학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신학교육은 서구의 신학과 목회이론의 적용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독자성과 개별성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미흡하였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지역은 신학과 신앙 전통의 보수성이 강하여 이 시대의 변화를 목회 전략과 계획에 접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교회의 목회 현실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수 신학대학원을 세워 지역 교회와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대화와 공동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연신원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 지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매학기에 열리는 계명신학세미나에 지역교회를 참여시키고 그 주제를 지역교회가 선호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제 25회 계명신학세미나(2008, 6, 2)를 “지역교회의 도전과 응전- 지역교회의 다양한 목회전략 세미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학술대회에 명성있는 전국적 강사들을 초빙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연신원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교육하였고, 학과의 신설, 통폐합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이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계명신학산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교회와의 동행을 계속해왔다. 특히, 계명신학산책은 연신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탁월한 활동으로서 2023년 5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회에 걸쳐 매 학기에 계속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진이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현실적 삶의 문제들을 신학과 성경의 진리와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신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순회강의를 해온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하여 보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3. 학사 운영상의 난제들과 해결책

연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어려움은 신입생의 모집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이 과제는 교육과 연구외에 대학원 홍보, 유능한 교수/강사 초빙,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 장학금 지급, 졸업후 취업 문제 등 다양한 분야와 불가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제와 연관되는 몇가지 기억되는 관심사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대학원의 명칭 문제

1996년 연신원이 처음 설립되던 때의 명칭은 “목회신학대학원”이었다.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이견이 생겼다. 교수진은 대학원생의 다수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신설된 대학원은 목회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 원생들의 견해는 달랐다. 여기서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간의 의사 소통이 미진했음이 드러났다. 대학원 명칭에 대한 불만이 처음에는 몇몇 목회자에게 국한되었으나 이것이 점점 확산되었다. 이 원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역에는 비인가 신학교와 기관들이 목회신학 과정을 많이 개설하여 목회신학이란 용어가 교육의 질이 낮은 이 신학과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인가된 우리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다른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는 질이 낮은 교육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다년간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몇 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론과 대화가 있은 후에 2000년 3월 1일에 목회신학대학원이라는 명칭에서 ‘목회’라는 명칭을 빼고 “신학대학원”으로 개칭하였다. 그후 2004년 3월 1일에 다시 현재의 “연합신학대학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이 일은 교수진과 대학원생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공감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관계

대학원생의 모집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별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수업은, 수업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겠지만,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수업을 하게 되고, 교수편에서 보면, 이것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학기가 진행되면서 일부 목회자 편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먼저는, 신학과정을 거치지 않은 평신도와 수업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로가 판이한 관점에서 신학과 교회 현실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차례 토로하였다. 목회자 편에서는 평신도들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목회자와 교인들간의 진솔한 대화가 없는 교회 현실에서 이 문제는 심히 어려운 것이었다. 교수진과 목회자들간의 몇차례에 걸친 만남에서 어려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 현실에서는 비록 양자 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업시간에 서로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대학원의 교육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양자간의 진지하고도 학문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목회자 편에서 이 결론을 수용하였다. 그후 원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목회자와 교인간의 관계소통”, “목회자의 자기 점검”등을 공부하고 목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3) 새로운 전공과목의 연구와 개발

대구 경북지역 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보수성이 강하고 전통적이다. 이에 비해 연신원은 교파에 속하지 않은 초교파적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수강생들, 특히 목회자들은 이론 신학의 과목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실용적인 실천신학의 과목들을 선호하였는데, 특히 상담 분야에 수강생들이 많았다. 이런 이유 외에도, 적지않은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문제들을 노출하기도 어렵고 상담받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12년간 개설된 과목들을 살펴보면, 내면 치유와 개인상담 분야에 수강생들이 많은 것이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상담전문가가 아닌 목회자에게 상담은 부담스럽고 송구스러운 과제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이단 사이버의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비성경적 상담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런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신원에서는 2010년에 목회학과를 기독교상담학과로 명칭을

바꾸고 기독교상담분야를 강화하였다. 이 과에서 교수/강사의 수, 개설되는 과목들을 늘리고,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살리며 상담이론의 실천적 목회적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이 결정은 처음 연신원을 설립할 당시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목회와 교회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에 맞추어 교과목을 편성하고, 이 분야의 교수/강사를 늘이고 교육과 행정의 편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연신원에서는 전문상담 목회, 교회 상담실 운영, 교회학교 청소년 상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해왔다: 기독교상담교칭학과(2014), 기독교가족상담학과(2018).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족과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체계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상담분야 외에도 연신원에서는 이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연구와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영어목회학과(2009)와 교회음악학과(2019). 이 교육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끊임없이 교회와 목회 현실을 유심히 살피고 그 수요와 경향을 파악해서 교육 방향을 유동성있게 적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오늘날 연신원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4. 전망과 대책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 세기를 지나면서 교회 제도와 조직이 경직되어 가고, 헌신과 봉사 정신이 약해지는 개인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교세가 약화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불안과 긴장을 느끼고 있다. 교인들은 신앙과 직분의 햇수가 길어졌지만, 그에 따른 신앙과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교인들이 점차 고령화되어 교회의 기능과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세대간의 갈등도 심해간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해서 교인 개개인은 신앙과 삶에서 능력과 기쁨을 잃어가고,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갈등이 심해진다.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교인 개개인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교회의 취약점은 주변의 이단 사이버 단체들을 연구해 보면 분명해진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성령론과 종말론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기독교 영성 즉 신앙의 성숙을 수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 교인들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살피는 영성수련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 맞추어 연신원은 영성수련의 이론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영성은 성서학, 교회사, 기독교 교육, 상담 및 복지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신원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연구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신원은 지역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학 협력기구를 상설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협력기구는 대학원과 지역 교회 대표들로 구성하여 공동 관심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신원은 그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교파적 종합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전공간의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연신원 교육은 학문의 다양성과 포용성 안에서 폭넓고 균형잡힌 신학과 목회관을 확립시킬 수 있다. 이 교육은 급변하는 목회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목회관과 교회관을 모색하여 교회연합과 일치와 진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 열린 교육은 일반 목회외에 기관 사역이나 NGO 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계명대는 1966년에 프린스턴 신대원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2026년에 갱신함으로 국제적 신학 교육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연신원 교육은 신학 교육의 국제화와 글로벌 감각을 지닌 신학도를 육성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노년기 교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교육현장으로 유치하고 노년기의 신앙과 삶을 의미있게 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과목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연신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생동안 헌신한 시니어 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끝으로, 연신원은 30년 동안 배출한 많은 원우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우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신원과 정기적인 교류를 가짐으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변화가 심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는 신앙과 목회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연신원의 교과목은 신앙과 목회에 적용하기 쉽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신원은 종합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보수성이 강한 이 지역 교회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